

내 글쓰기의 세 가지 원칙

김용우*

대학에 올라와서야 완결된 형태의 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써보게 된 나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정도를 더해가는 어떤 역설 때문에 힘들어했다. 더 많이 배우고 느낄수록, 글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글을 쓰거나 읽은 경험이 쌓임에 따라 자기 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글로 표현하려 했을 때에도 내가 이전과 똑같은 말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꽤나 당혹스러웠다. 그러니까 기대치고 뭐고 글쓰기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리포트를 써도, 저현상에 대해 소논문을 써도 언제나 비슷비슷한 이야기뿐이니, 제대로 된 글을 쓰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만도 했다. 이런 느낌 덕분에 아마도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방식과 그렇게 쓴 글에 대해(그리고 남의 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런 반성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명제는 ‘솔직하게 쓰라’는 것이었다. 나름대로의 견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흠이 아니겠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그 세계관이 어떤 규제하는 틀로써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쓰지 않고 틀에 꼭 차지 않는 것은 늘어났던 것이다. 즉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은 안 봐도 뻔했다. 이 진부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어떤 텍스트와 마주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아는 것을 명확히 기술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거나 정확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재학생, 2006년 1학기 '제4회 우수리포터 공모대회' 수상자(장려상 「학문리포트 씨네 형제들」 읽기 책임의 윤리와 공감의 연대).

히 어느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지,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인지(혹은 모순인 듯보이는지),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떤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신뢰가 가지 않는지 등을 지문해보고 바로 이런 내용을 글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껏 나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 듯 말하고, 내 틀에 맞추기 위해 내용을 왜곡해왔기 때문에 내 글도, 나 자신도 발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꼼꼼하게 쓰라’는 원칙을 들 수 있겠다. 논리 전개가 부드러운지, 개념 선택이 정확한지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특히 단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사용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것이 바로 이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 참고자료들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개념들을 끌어와서 별 생각 없이 리포트 내용에 우겨넣곤 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리의 전개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최근야야 알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꼼꼼한 읽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내 주장에 맞추거나 혹은 그것에 대립시키기 위해 주어진 텍스트를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뜨개질을 하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판이나 논평보다는 꼼꼼한 이해가 우선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글로 드러내는 게 관건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용기 있게 쓰라’는 주장을 하고 싶는데, 이 용기는 아마도 좋은 글쓰기의 필요조건이라기보다 글쓰기 자체의 필요조건일 것이다. 솔직하고 꼼꼼하게 쓰려다보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글에 온갖 클리셰(Cliche: 진부한 표현)가 뒤범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뒤늦게 글읽기와 글쓰기의 어려움을 느꼈다.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는 내 무지를 새삼 느끼곤 했는데,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런 데가 이해되지 않고 저 부분은 저런 데가 어렵고 하는 식으로만 씀으로써 나의 무지를 온 천하에 공개할 것인지 크게 고민되었다. 하지만 그 글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글이 아니라면(!!) 역시 그렇게라도 쓰는 게 맞을 듯했다. 모르는 건,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학생’이기에…….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열해보았는데, 적어놓고 보니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 정작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항상 습관이란 것이 커다란 장애가 된다. 그 원칙들이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제시한 것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제부터라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원칙들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 습관들이 다시금 낡은 것이 되었을 때, 이를 훌쩍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은 채로 말이다. 9

글 쓰는 과정과 글쓰기의 의미

이정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재학생, 2008년 1학기 '제4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수상자(우수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본 심리철학의 타당성」).

필자가 글쓰기에 어느 정도 친숙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이번 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2~3년 전만 해도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고등학교 때까지 소위 '이과 학생'이었으며 글쓰기보다는 수학적 문제풀이에 더 친숙했고, 대학생이 되어 물리교육과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철학과 복수전공을 통해 글쓰기에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필자가 어떻게 하면 글을 훌륭하게 쓸 수 있으며 그러한 글을 통해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여기에서 논한다면 그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 월권을 행사하는 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서적들을 이용하거나 글쓰기교실을 통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필자는 우리가 '대학국어' 시간에 배웠던 글쓰기의 전형적인 순서를 따라서 글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만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이 어떠한지 단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하나의 우화로서 보여주는 것이 적당할 듯싶다. 아마도 여기에서 독자들은 필요한 것은 취하고 쓸데없는 것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1. 필자의 글 쓰는 과정